



MVPR-2008-44

VIP REPORT

2008. 12. 10.

-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과 시사점
 - 성장잠재력 확충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가 필요하다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이장균, 주원, 이주량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030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030)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SOC 투자 추이와 국제 비교	6
3.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11
4. 정책적 시사점	17
【별첨 1】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분석	20
【별첨 2】 산업별 부가가치유발효과 분석	24
【별첨 3】 최근 건설투자의 동향과 전망	27
【별첨 4】 SOC 투자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	30
■ HRI 경제 지표	32

1. 개요

지난 6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미국 경제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SOC 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신 뉴딜'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우리정부도 재정 총지출 규모를 2008년 257.2조원에서 2009년 수정안 기준 283.8조원으로 26.6조원(10.4%)을 증액시키면서, 증액된 26.6조원중 약 5분의 1인 5.2조원을 SOC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SOC 분야의 지출 증가율은 2008년 전년 대비 6.3%에서 2009년에 26.7%로 크게 확대된다(2008년 19.6조원 → 2009년 24.8조원).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근거로 현재와 같이 민간 부문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SOC 투자 정책의 높은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SOC 투자 정책은 대규모 토목 사업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수지 악화, 비효율적 집행 등과 같은 부작용과 더불어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 경제 수준에서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경기진작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또한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지도 모색해 보았다.

2. SOC 투자 추이와 국제 비교

일부에서 우리나라의 SOC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확대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2000~2007년 SOC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3.0%로 같은 기간 총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8.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SOC 부문별로 보면 물류개선(23.6%), 광역·대중교통(19.4%), 주택도시(11.1%) 등이 총 예산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한편 철도(8.4%), 지역개발(5.8%) 등도 비교적 투자 증가세가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도로(0.4%), 공항(△8.1%), 수자원(1.3%) 등은 다른 부문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SOC 투자가 적절한 수준인 지를 살펴보기 위해 IMD의 세계 경쟁력 연감을 살펴보면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1km당 도로 길이는 1.02km로 55개국중 23위(2005년 기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1km당 철도 길이는 한국이 0.034km로 역시 조사 대상 55개국중 24위에 불과하다(2006년 기준). 반면 2006년 GDP 대비 통신투자 비중은 1.15%로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SOC 투자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항공운송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55개국중 22위, '인프라의 효율성' 35위, '인프라의 유지 및 개발' 20위, '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성' 30위 등으로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2008년 기준).

3.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1조원의 SOC 투자는 첫째, 건설투자 증가율을 0.52%p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1조원의 명목 SOC 투자가 1조원의 명목 건설투자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이를 최근 3년간의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부문 디플레이터 증가율을 고려하여 실질가치화하면 2009년 실질 건설투자 증가율을 0.52%p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2009년 수정예산(案)상의 SOC 투자 증액분 5.2조원은 건설투자를 2.7%p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현경연 08.12.8. 수정 자료를 근거로 추정)

둘째, 연간 약 1만 7,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산업연관표 기준 '토목'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16.6명/10억원으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11.6명), 자동차(11.2명), 화학(10.1명), 철강(7.5명), 반도체(6.1명) 등 보다 큰 고용유발효과를 가진다. 이에 따르면 1조원의 SOC 투자는 1만 7,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여기에 명목 SOC 투자 증액분 5.2조원을 고려할 경우 경제 전체에 8만 6,320명의 고용을 창출하게 된다. 이는 2008년 10월 경제활동인구 2,458만 2,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실업률을 0.4%p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08%p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신규 일자리 1만 7,000여개와 최근 3년 동안의 건설업 부문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SOC 투자 1조원 당 명목상 가계 근로 소득이 약 5,1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여기에 지난 2008년 3/4분기 현재 전국가구의 평균소비성향(77.5%)을 고려하면 약 4,000억원이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최근 3년간의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로 실질가치화 할 경우 0.08%p의 민간소비 증가율 제고 효과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SOC 투자 증액분을 고려하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이 0.4%p 추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산된다.

넷째, 이러한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진작 효과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약 0.1%p 높이는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1조원의 SOC 투자로부터 유발된 실질 건설투자와 실질 민간소비 증가분을 고려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을 0.12%p 제고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중에서 건설업 부문의 수입유발효과 (토목 부문 수입유발계수 0.1839)를 차감할 경우 실제적인 성장률 제고효과는 0.1%p로 분석된다. 이에 따르면 SOC 투자 증액분 5.2조원은 2009년 경제성장률을 0.5%p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산된다.

다섯째, 장기적으로도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한 경제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2005년에 9.7%로 미국(7.5%), 일본(4.8%)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한국무역협회), 2004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교통 관련 사회적 비용은 170조원으로 GDP 대비 22%에 달하고 있다(舊 건설교통부). SOC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장기적 효과는 이러한 높은 물류 비용 문제의 개선, 안정적 에너지 공급, 교통혼잡도의 완화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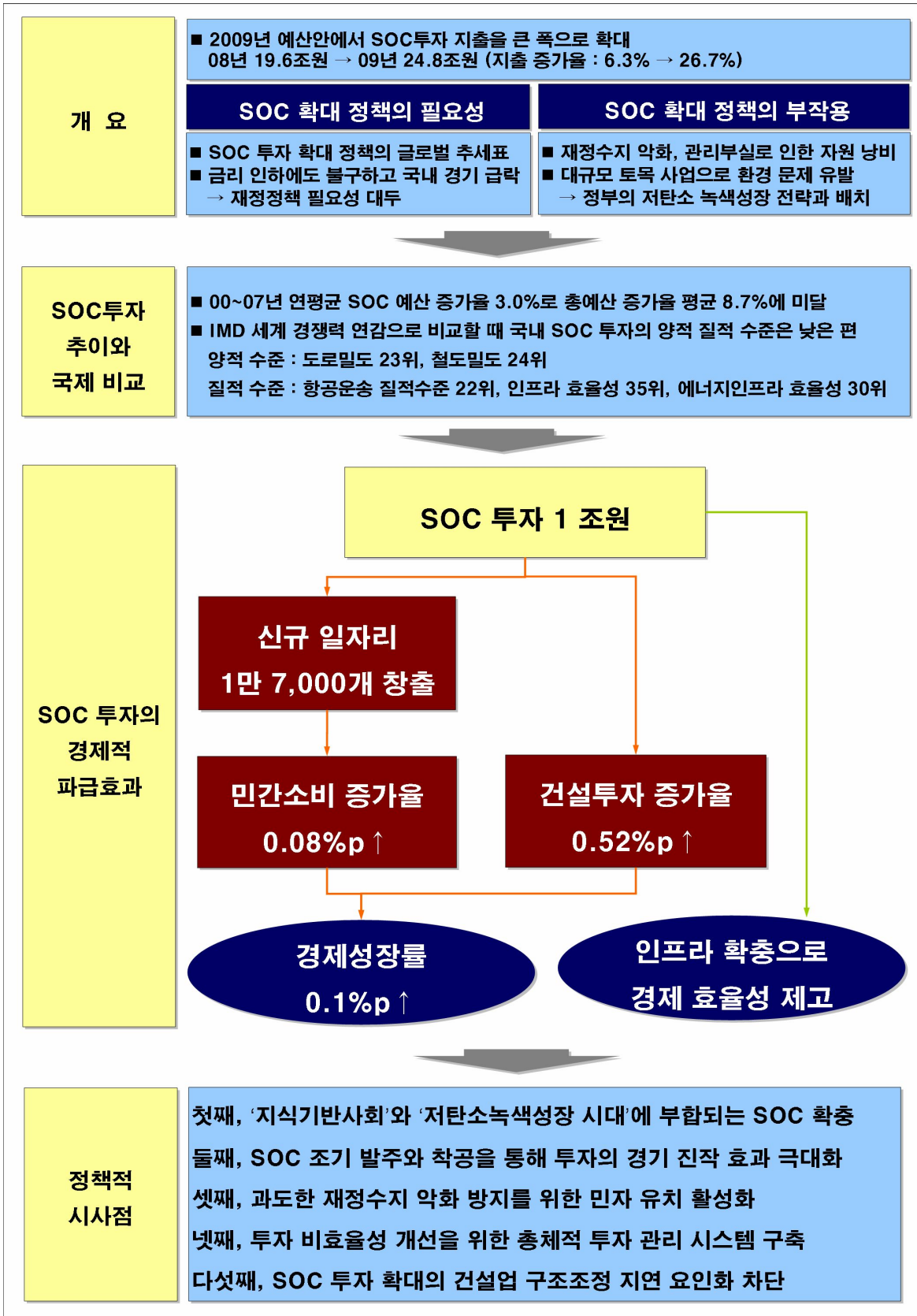
첫째, '지식 기반 사회'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개념의 SOC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방향) 지금까지의 SOC 투자가 교통 인프라의 물량적 자본 축적에 주력하였다면, 향후 SOC 투자 정책은 '지식 인프라 구축'과 '환경 비용 축소'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UNCTAD에 의하면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 기준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고려한 저탄소 배출 순위는 32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친환경 도로 건설 확대, 저탄소 배출 물류 시스템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 등과 같은 지식 인프라 부문의 투자 비중 확대 노력도 요구된다.

둘째, 경기 진작을 위해 SOC 투자 정책을 사용할 바에는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사업의 조기 발주와 착공이 요구된다. (시기)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들의 신속성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SOC 투자 정책의 경우에도 관련 사업의 조기 발주와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009년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대운하 관련 사업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고 야당도 정부 SOC 투자 확대의 긴급성을 인식하여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재정수지의 급속한 악화 방지를 위해 민자 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방법) 최근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BTL, BTO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자 유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 민자 SOC 건설에 있어서 외국 자본의 펀딩이나 외국 건설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재정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SOC 투자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관리) 지방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중앙·지방간, 지방정부간 원활한 투자 계획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과잉·중복 투자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집행 과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개선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SOC 투자 확대로 건설업 구조조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주의점) 국내 건설업 부실이 심화되고 있어 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SOC 투자가 정부가 대주단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의 구조조정 정책과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직접 발주 대상 기업에 대한 재무구조상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OC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1. 개 요

(1) 최근 SOC 투자 확대 정책의 배경

○ (경기 침체 심화) 최근 한국 경제는 내수와 외수가 동반 부진을 보이는 유례없는 복합불황 국면으로 빠지고 있다고 판단됨

- 내수 부문은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의 경우 올해 들어 감소세를 지속중

-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7년 4.5%에서 2008년 1~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3%로 크게 하락, 특히 2008년 3/4분기에 1.1%로 급락
- 설비투자의 경우 2007년 연간 7.6%에서 2008년 1~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2%로 하락
- 건설투자는 2007년 1.2%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1~3/4분기에 들어 전년동기대비 1.2% 감소세로 전환

< 국민계정상 주요 수요항목 증가율 지표 >

(전년동기대비, %)

	2005	2006	2007	2008			
				1/4~3/4	1/4	2/4	3/4
GDP	4.2	5.1	5.0	4.8	5.8	4.8	3.8
총소비	3.9	4.8	4.7	2.6	3.5	2.7	1.7
민간소비	3.6	4.5	4.5	2.3	3.4	2.3	1.1
총투자	2.1	3.8	2.5	2.7	3.4	0.7	4.3
건설투자	△0.2	△0.1	1.2	△1.2	△1.1	△1.2	△1.3
설비투자	5.7	7.8	7.6	2.2	1.4	0.7	4.7
재화서비스수출	8.5	11.8	12.1	11.2	11.8	12.5	9.4
재화서비스수입	7.3	11.3	11.9	8.8	9.0	8.6	9.0

자료: 한국은행.

- 수출 부문의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 침체에 따르는 세계 교역 위축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임
 - 국민계정상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은 올해 3/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9.4% 증가하여 한 자릿수에 증가율에 그침
 - 2008년 11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3% 줄면서 2001년 12월(△20.4%)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

- (경기부양책의 글로벌 추세) 유례없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들은 SOC 투자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은 지난 11월 6일 경기부양을 위해 약 6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감세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 6일 50년 대 이후 최대 규모의 SOC 투자 확충 계획을 발표
 - 11월 6일 계획에서는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 관련 SOC 투자를 목적으로 약 600억 달러의 기금을 사용하여 연방교통시설투자은행을 설립하고, 도로와 교량 등 SOC 투자를 위해 약 2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추진한다고 밝힘
 - 12월 6일 미국의 오바마 당선자는 인프라 투자, 에너지 효율 제고, 교육 시설 확충 등을 골자로 하는 50년대 고속도로 체계 구축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SOC 투자 계획을 발표함

 - 영국도 내년 예산안에서 학교, 병원, 도로 등에 대한 공공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음

 - 프랑스는 최근 총 260억 유로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중에서 SOC와 지방정부 지원 등에 105억 유로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경우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는데, 이중 대부분이 철도, 석유가스파이프라인, 고속도로, 공항 확장 등 교통 시설 및 에너지 시설 관련 SOC 부문에 투입될 계획임

< 최근 세계 주요국의 경기부양책과 SOC 투자 확대 정책 >

국 가	내 용
미국 (1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억~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을 실행한 후 내년 초 영구적인 감세조치를 추가하는 2단계 경기부양책을 추진 - 낙후된 도로, 철도 등을 보수·신설을 목적으로 연방교통시설투자은행 설립을 통해 600억 달러 이상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 - 250억 달러를 들여 도로와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투자를 늘리고, 재정곤란을 겪고 있는 주정부에도 250억 달러를 지원
미국 (1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규모의 국가 인프라 투자, 에너지 효율 증대, 교육 시설 투자 계획 발표 - 1950년대 고속도로망 구축 사업 이후 최대 규모의 도로 시설 확충 - 예산 절감을 위해 공공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 학교 건물 현대화 및 새로운 기자재 보급
영국 (11.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예비 예산안 의회 보고를 통해 학교, 병원, 도로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
프랑스 (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와 주택건설 분야 지원 등에 260억 유로(329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 -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지방정부 지원 등에 105억 유로 투입 - 자동차 산업에 13억 유로 투입 - 건설 분야에 65억 유로 지원 예정
네덜란드 (1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부양을 위해 60억유로(11조원)를 투입하기로 결정 - 공공사업 수행 기업에 신속한 대금결제 집행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을 조기 추진
중국 (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가 4조위안(약 800조원)의 내수진작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방정부도 자체 경기부양책 발표 (18조위안) -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철도, 석유가스파이프라인, 고속도로, 공항 확장 등이 포함
호주 (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 및 교육, 보건 분야 등에 향후 290억 호주달러를 투입할 계획 -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는 6억 호주달러를 투입

자료 : 국내외 언론사 기사.

주 : 국가의 괄호 안은 경기부양책 발표 시기임.

(2) SOC 투자 확대 정책에 대한 긍정론과 부정론의 대립

- 최근 우리 정부가 경기 진작을 위해 SOC 투자의 대폭 확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나, SOC 투자의 경기 진작 효과가 미약하고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대두
 - 또한 지금의 한국 경제와 7, 80년대의 개도국 지위의 한국 경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간주하고, 경기부양책을 거론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개발 연대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존재함
 - 현재와 같이 민간 부문이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경제발전 단계에서는 SOC 투자 정책의 높은 경기 진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고 있음
 -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필연적으로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 불균형’ 과 ‘시장의 실패’ 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반대의 의견이 존재함
 - SOC 투자 정책은 대규모 토목 사업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재정수지 악화, 비효율적 집행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
 - 특히 대규모 토목 공사 위주인 SOC 투자 확대가 유발하는 환경 문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과 상충되는 정책임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현 경제 수준에서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경기진작 효과)를 분석해 보고,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SOC 투자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지도 모색해 봄

【참고】 경기부양책의 수단과 SOC 투자의 개념

- (경기부양책의 수단)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거시경제정책중 통화정책(금리인하 정책), 감세정책의 경우 1차적인 효과는 가계와 기업의 실질 구매력과 경제 심리의 개선에 국한됨
 - 이러한 정책들이 소비, 투자 등 실물 지표의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실물 경제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움

- 따라서 통화정책, 감세정책 등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 정책과 병행되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함
 - 반면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통화정책이나 감세정책에 비해 생산과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소득 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는 사회안전망 확충, 공공근로 사업 확대, 환경 사업 개선 등 사용처에 따라 다양한 세부 정책들이 있음
 - 특히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수단이 SOC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임
- **(SOC 투자의 개념) 사회간접자본 (社會間接資本, Social Overhead Capital)**이란 공공 부문이 주체가 되어, 경제 활동의 원활성을 위해 건설 또는 구축한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의미함
- SOC의 건설(구축)의 주체 : 원칙적으로 공공 부문 (정부, 공기업, 기타 공공단체)이 주체가 되나, 경우에 따라서 건설(구축) 과정에 민간 부문이 일부 또는 전부 참여하는 경우도 있음
 - SOC의 형태 :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투자분이 매기마다 감가상각이 되어 누적되는 자본임
 - SOC의 수혜자 : 가계, 기업, 정부 모두 SOC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구체적인 혜택은 금전상의 직접적 이익보다는 관련 SOC를 이용함으로써 주로 비용 절감,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의 외부효과를 가지는 효용 증대에 있음
 - 일반적으로 SOC는 외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부 경제 주체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편익 또는 효용을 증가시킴
 - SOC의 종류 (협의 기준) : 통계청이 10년마다 조사·발간하는 『국부조사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SOC에는 교통, 주거환경, 수리, 통신 시설등이 포함
 - 교통 시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이 포함
 - 주거 환경 시설 : 상하수도, 전기, 가스 등
 - 수리 시설 : 수리 시설과 치수 관련 시설 등
 - 통신 시설 : 전화, 통신망 등

2. SOC 투자 추이와 국제 비교

(1) 주요 부문별 SOC 투자 추이

○ 2000~2007년 SOC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3.0%로 같은 기간 세출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8.7%에 크게 미치지 못함

- SOC 부문별로 보면 물류개선(23.6%), 광역·대중교통(19.4%), 주택도시(11.1%) 등이 연평균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 기록함
- 한편 철도(연평균 8.4%), 지역개발(5.8%), 산업단지 지원(8.2%) 등의 부문 등의 증가율도 SOC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중임
- 반면 도로(0.4%), 공항(△8.1%), 수자원(1.3%) 등은 다른 부문에 비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SOC 부문별 예산 추이 (舊 건설교통부 예산 규모 기준) >

(단위: 억 원,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연평균증가율
계	145,322	152,434	152,443	172,275	163,274	180,899	180,588	176,358	3.0%
도 로	74,787	81,956	80,069	90,232	80,647	76,614	73,363	75,309	0.4%
철 도	28,591	28,708	32,962	35,870	31,744	50,973	47,618	44,029	8.4%
공 항	7,423	6,066	3,137	3,803	3,617	4,005	3,848	3,334	△8.1%
수자원	16,230	16,894	14,263	17,064	17,399	18,438	21,873	16,210	1.3%
광역·대중교통	2,227	2,544	2,426	3,930	5,521	4,932	5,601	6,783	19.4%
물류개선	334	194	343	565	744	854	1,164	968	23.6%
주택도시	5,664	5,761	8,095	9,706	10,811	11,722	11,471	11,222	11.1%
지역개발	1,589	1,628	1,681	1,749	1,734	1,897	2,173	2,339	5.8%
산업단지지원	977	490	531	1,154	1,220	1,259	1,489	810	8.2%

자료 : 국토해양부.

(2) 2009년 SOC 투자 확대의 부문별 내용

○ 정부는 2009년 예산수정안에서 그동안 낮은 증가세에 머물렀던 SOC 투자를 크게 확대시킴

- 2009년 정부 총지출은 당초안 대비 10.0조원 증가한 283.8조원 ('08 본예산 대비 10.4%, 추경예산 대비 8.3%)
- 당초안 대비 증가한 10.0조 원 중 지방 SOC 확충 등 지방경제 활성화에 대한 증액 분이 4.6조 원¹⁾에 달하고 있음
 -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지방발전 교통망, 하천 정비 사업 등 SOC 관련 사업만 3.7조원 규모로 지출이 계획됨
 - 이외 농림시설(0.2조원), 환경시설(0.2조원), 방재시설 (0.5조원) 등 SOC를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0.9조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계획임

< 12대 분야 자원배분 변동사항(2009년 수정 예산안 기준) >

(조원, %)

구 분	'08*		'09당초안		'09수정안		증감 (B-A)
	증가율		(A)	증가율	(B)	증가율	
1. R&D	11.1	(13.0)	12.3	(10.8)	12.3	(10.8)	-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6	(0.3)	13.2	(5.0)	15.3	(21.1)	2.0
3. SOC	19.6	(6.3)	21.1	(7.9)	24.8	(26.7)	3.7
4. 농림수산물	16.0	(0.3)	16.6	(4.1)	17.1	(7.1)	0.5
5. 보건·복지	67.7	(10.2)	73.7	(9.0)	74.6	(10.3)	0.9
6. 교육	35.6	(15.7)	38.7	(8.8)	38.7	(8.8)	-
7. 문화·체육·관광	3.3	(11.7)	3.4	(3.4)	3.4	(3.7)	-
8. 환경	4.5	(10.6)	4.7	(5.6)	4.9	(10.1)	0.2
9. 국방(일반회계)	26.6	(8.8)	28.6	(7.5)	28.7	(7.8)	0.1
10. 통일·외교	2.8	(15.6)	2.9	(2.2)	2.9	(3.7)	-
11. 공공질서·안전	11.7	(7.1)	12.2	(4.4)	12.3	(5.1)	0.1
12. 일반공공행정	45.9	(8.6)	47.5	(3.5)	48.9	(6.5)	1.4
◆ 예산(순계)	195.1	(10.4)	209.2	(7.2)	217.6	(11.5)	8.4
◆ 총지출	257.2	(8.5)	273.8	(6.5)	283.8	(10.4)	10.0

자료 : 기획재정부.

1) 2009년 수정예산·기금안(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결과 항목과 예산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9년 국토해양부의 예산안 원안에 따르면 SOC 투자 중 그동안 부진했던 도로, 항공·공항, 수자원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시킴

- 2009년 국토해양부의 투자 관련 부문별 예산안(원안 기준)을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지출중 도로 부문 투자가 3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다음으로 철도(18.1%), 해운·항만(9.8%), 수자원(9.0%) 등의 순서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²⁾

- 증가율로는 물류 등 기타(45.6%), 해양환경(66.4%), 산업단지(24.1%), 수자원(14.7%), 도시철도(13.2%) 등의 순서로 지출 확대가 이루어짐

< 국토해양부 투자 관련 부문별 예산안 (2009년 예산안 원안 기준) >

(단위 : 억 원)

구 분	2008(①)	2009案(②)	증 감 (②-①)	%
전 체(총지출)	190,952	204,464	13,512	7.1
○ 도 로	75,893	79,429	3,536	4.7
○ 철 도	36,540	36,949	409	1.1
○ 도시철도	12,863	14,562	1,698	13.2
○ 해운·항만	20,317	19,990	△327	△1.6
○ 항공 및 공항	2,109	442	△1,667	△79
○ 물류 등 기타	12,273	17,858	5,595	45.6
○ 수자원	16,007	18,364	2,357	14.7
○ 지역 및 도시	7,118	7,341	223	3.1
○ 산업단지	4,979	6,180	1,201	24.1
○ 주 택	1,905	1,772	△133	△6.98
○ 해양환경	948	1,577	629	66.4

자료 : 국토해양부.

주 : 2008년 예산에 추경예산액(9,519억 원) 미포함. 2008년 이후 舊 해양수산부 일부 부서와 건설교통부가 통합되면서 2007년 이전 통계와 연속성이 상실.

2) 2009년 예산안의 원안과 수정예산의 내용이 다르고, 2008년 12월 7일 현재 수정예산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의중이기 때문에 실제 확정안은 표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음.

(3) SOC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

○ 한국의 SOC 투자 수준은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충분한 상황이 아님

- IMD의 세계 경쟁력 연감을 살펴보면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조차 한국의 SOC 투자가 적정한 수준을 미달하고 있다고 판단됨
 -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도로 한국의 1km당 자동차는 151대로 조사 대상 37개국중 독일, 싱가포르에 이어 3위를 기록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1km²당 도로 길이는 1.02km로 55개국중 23위(2005년 기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철도 운송의 경우 IMD에 의하면 1km²당 철도 길이는 한국이 0.034km로 역시 조사 대상 55개국중 24위(2006년 기준)에 불과함
 - 반면 2006년 GDP 대비 통신투자 비중은 1.15%로 세계 7위를 기록

< 한국의 주요 양적 SOC 인프라 지표 >

항 목	비 고	2003	2004	2005	2006
도로밀도	km/km ²	0.98 (25)	1.01 (24)	1.02 (23)	—
철도밀도	km/km ²	0.03 (26)	0.03 (27)	0.030 (23)	0.034 (24)
통신 투자 비중	% of GDP	1.33 (8)	0.80 (14)	0.72 (14)	1.15 (7)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2008).

주 : 1) 괄호 안은 세계 순위.

2) 각 항목의 원문 명칭은 도로밀도(ROADS), 철도밀도(RAILROADS), 통신 투자 비중 (INVESTMENT IN TELECOMMUNICATION) 임.

- IMD의 세계 경쟁력 연감 상의 설문 결과를 보면 SOC 투자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대체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2008년 기준).
 - 항공운송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55개국중 22위를 차지함
 - 2008년 기준 인프라의 분포적 효율성은 10점 만점에 6.43으로 조사대상국중 35위를 기록함
 - 인프라의 유지 및 개발에 대해서는 2007년에 7.09점으로 11위를 기록하였으나, 2008년에는 6.06점으로 20위를 나타냄
 - 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성은 2007년에 12위까지 상상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 조사에서는 5.74점으로 30위를 기록함

< 한국의 주요 질적 SOC 인프라 지표 >

항 목	비 고	2005	2006	2007	2008
항공운수의 질	설문 (10점만점)	7.64 (15)	6.58 (35)	7.78 (13)	7.64 (22)
인프라의 분포적 효율성	설문 (10점만점)	6.20 (33)	6.21 (35)	7.30 (18)	6.43 (35)
인프라의 유지 및 개발	설문 (10점만점)	6.43 (18)	5.47 (28)	7.09 (11)	6.06 (20)
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성	설문 (10점만점)	6.94 (22)	5.53 (34)	7.48 (12)	5.74 (30)
미래 에너지 확보	설문 (10점만점)	—	—	6.00 (17)	3.76 (44)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5~2008).

주 : 1) 괄호 안은 세계 순위.

2) 각 항목의 원문 명칭은 항공운수의 질(QUALITY OF AIR TRANSPORTATION), 인프라의 분포적 효율성(DISTRIBUTION INFRASTRUCTURE), 인프라의 유지 및 개발(MAINTENANCE & DEVELOPMENT), 에너지 인프라의 효율성(ENERGY INFRASTRUCTURE), 미래 에너지 확보(FUTURE ENERGY SUPPLY) 임.

3.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1) 건설투자 제고 효과

○ (건설투자 증가율 0.52%p 상승) SOC 투자 1조원 당 건설투자 증가율을 0.52%p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1조원의 명목 SOC 투자가 1조원의 명목 건설투자로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이를 최근 3년간의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부문 디플레이터 증가율을 고려하여 실질가치화하면 2009년 실질 건설투자 증가율을 0.52%p 높이는 효과를 가짐

- 이에 따르면 정부의 2009년 수정예산(案)상의 SOC 투자 증액분 5.2조원은 건설투자를 2.7%p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산됨(현대경제연구원 08.12.8. 수정 경제전망 자료의 부문별 증가율을 근거로 추정)

○ SOC 투자 확대에 의한 건설 경기 부양 효과로 건설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최근 건설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영난으로 부도업체수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다른 업종의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의 부채비율도 2007년말 156.1%에서 2008년 9월말 184.2%로 28.1%p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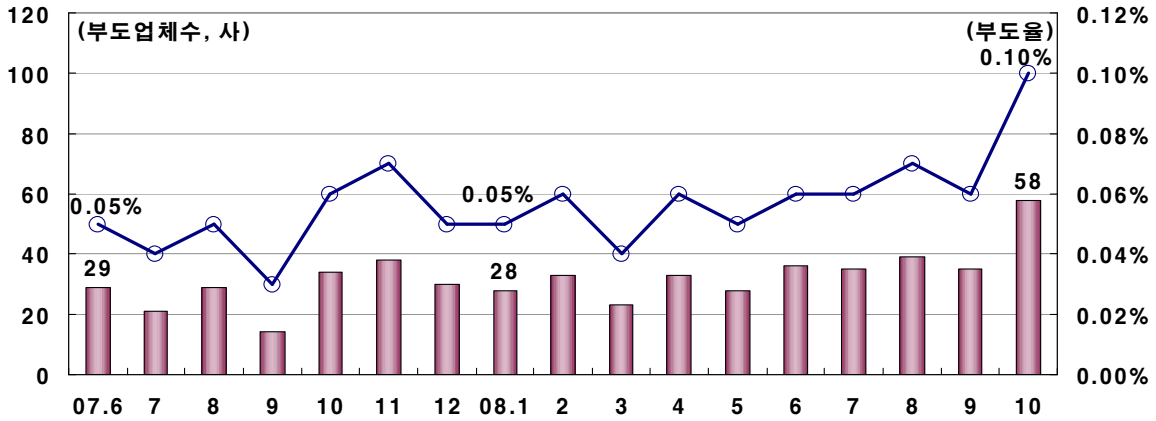
· 특히 2008년 9월까지 월평균 30개사 정도에 불과했던 부도업체수가 10월에 들어 58개로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도율도 0.1%까지 급등함

< 주요 업종의 영업이익률 및 부채비율 추이 >

	영업이익률 (%)			부채비율 (%)			
	08. 1/4	2/4	3/4	07년말	08. 3월말	08. 6월말	08. 9월말
제조업	8.1	9.2	6.6	80.3	88.9	92.8	102.6
건설업	6.6	7.0	5.4	156.1	168.1	174.9	184.2
서비스업	6.9	6.4	5.9	97.9	102.1	103.2	105.6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주: 하위 업종은 주요 산업만 예시.

< 건설업체수 및 건설업 부도율 추이 >



자료: 국토해양부.

주: 전체건설업 기준임 (2008년 10월 현재 전체 건설업체수는 5만 5,831개사이며, 이 중 일반건설업이 1만 2,788개사, 전문건설업이 4만 3,043개사임).

- 건설업체들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데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채산성이 악화되었던 가운데, 그동안 공공·토목 발주의 부진과 주택 미분양이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08년 들어 주택 건설 실적이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크게 증가
 - 따라서 최근 건설업의 부진 원인이 일시적인 것보다는 시장 침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기 때문에, 건설업종의 경영 악화 현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임

< 주택건설실적 및 미분양주택 추이 >

(단위 : 호, 전년동기대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9월
주택건설실적	585,382	463,800	463,641	469,503	555,792	199,083
증감률		△12.2	△20.8	0.0	1.3	18.4
미분양주택	38,261	69,133	57,215	73,722	112,254	157,291(8월)
증감률		53.5	177.4	49.5	28.9	52.2
						71.5(8월)

자료: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과 및 주택정책과.

주: 주택건설실적은 유량, 미분양주택은 저장.

- 이에 따라 건설 경기 침체가 건설기업들의 부실을 통해 금융권으로 확산될 우

려가 높으며, 특히 건설사들이 금융권으로부터 도입한 PF의 상당수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실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금융감독원이 PF 대출이 있는 89개 저축은행 899개 사업장에 대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10개 사업장(23%)에서 연체가 발생함
- 문제는 현재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향후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경우 연체율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우려됨

< PF대출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현황 >

(단위 : 개, 억 원)

구 분	사업장 기준			금액 기준		
	자체분류(a)	조사결과(b)	증감(b-a)	자체분류(a)	조사결과(b)	증감(b-a)
정 상	580	447	△133	80,592	67,044	△13,548
주 의	180	263	83	32,245	39,926	7,681
악화우려	139	189	50	9,263	15,130	5,867
계	899	899	-	122,100	122,100	-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공동, 『저축은행 PF대출 대책 추진방향』 (2008. 12. 3.).³⁾

- 주: 1) 정상 평가등급은 사업진행상황과 사업성이 모두 양호
 2) 주의는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지만 사업성은 양호
 3) 악화는 사업추진이 곤란.

(2) 고용 창출 효과

○ (신규 일자리 1만 7,000개 창출) 연간 약 1만 7,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 2003년 산업연관표 기준 '토목' 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16.6명/10억원으로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11.6명), 자동차(11.2명), 화학(10.1명), 철강(7.5명), 반도체(6.1명) 등보다 큰 고용유발효과를 가짐
- 따라서 1조원의 SOC 투자는 1만 7,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능력을 가지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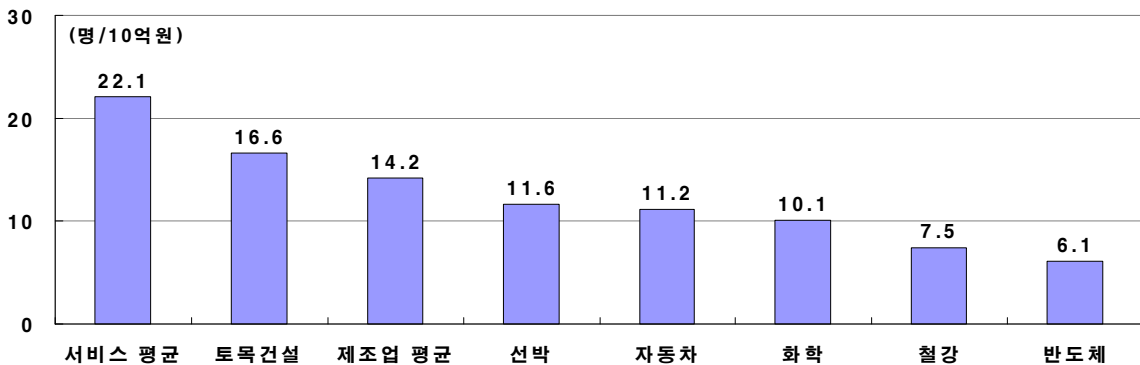
3) 이번 실태조사는 금융감독원이 899개 사업장에 대한 서면·현장조사를 거친 뒤 1차로 PF대출 전문검사역이 세부평가반을 구성, 사업장을 3등급으로 분류하고 2차로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재확인하는 절차로 진행.

- 여기에 명목 SOC 투자 증액분 5.2조원을 고려할 경우 경제 전체에 8만 6,320명의 고용을 창출함
 - 이는 2008년 10월 경제활동인구 2,458만 2,000명을 기준으로 할 때 실업률을 0.4%p 낮추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SOC 투자의 높은 고용 창출력 회복 효과는 건설업이 가지는 고유의 높은 취업유발효과에 기인함

- 수출과 내수가 모두 침체에 빠져 향후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의 고용 흡수력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지난 10월 신규취업자(취업자 증가수)가 9만 7,000명으로 작년 10월의 28만 7,000명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함
- 이러한 상황에서 SOC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경우 SOC 부문의 높은 취업유발효과가 경제의 고용창출력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2003년 산업연관표 기준 '토목건설'의 취업유발계수는 16.6명으로 노동집약적 특성이 높은 서비스업(22.1명)보다는 낮은 수준임
 - 그러나 제조업 평균인 14.2명보다는 높으며, 특히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11.6명), 자동차(11.2명), 화학(10.1명), 철강(7.5명), 반도체(6.1명) 등 보다 큰 고용유발효과를 가지고 있음

< 주요 업종 취업유발계수(2003년 기준) >



자료: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 주: 1) 2005년 산업연관표 부속표인 고용표는 2008년 12월 현재 아직 未발표
- 2) 취업유발계수란 해당 산업의 최종수요 10억 원이 증가할 때, 해당 산업을 포함하여 다른 산업 모두에서 유발되는 취업자수를 의미.

(3) 소비 진작 효과

○ **(민간소비 증가율 0.08%p 제고) SOC 1조원 당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가계 소득 증가로 민간소비 증가율을 0.08%p 높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신규 일자리 1만 7,000여개와 최근 3년 동안의 건설업 부문의 임금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SOC 투자 1조원 당 명목상 가계 근로 소득이 약 5,1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함
- 여기에 지난 2008년 3/4분기 현재 전국가구의 평균소비성향 77.5%를 고려하면 약 4,000억원이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됨
- 이를 최근 3년간의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로 실질가치화 할 경우 0.08%p의 민간 소비 증가율 제고 효과를 가지게 됨
- 따라서 이번 정부의 SOC 투자 증액분을 고려하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을 0.4%p 추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산됨

(4)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 **(0.1%p 성장률 제고 효과)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진작 효과로 0.1%p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됨**

- 1조원의 SOC 투자로부터 유발된 실질 건설투자와 실질 민간소비 증가분을 고려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을 0.12%p 제고하는 효과가 발생함
- 그러나 이중에서 건설업 부문의 수입유발효과 (토목 부문 수입유발계수 0.1839)를 차감할 경우 실제적인 성장률 제고효과는 0.1%p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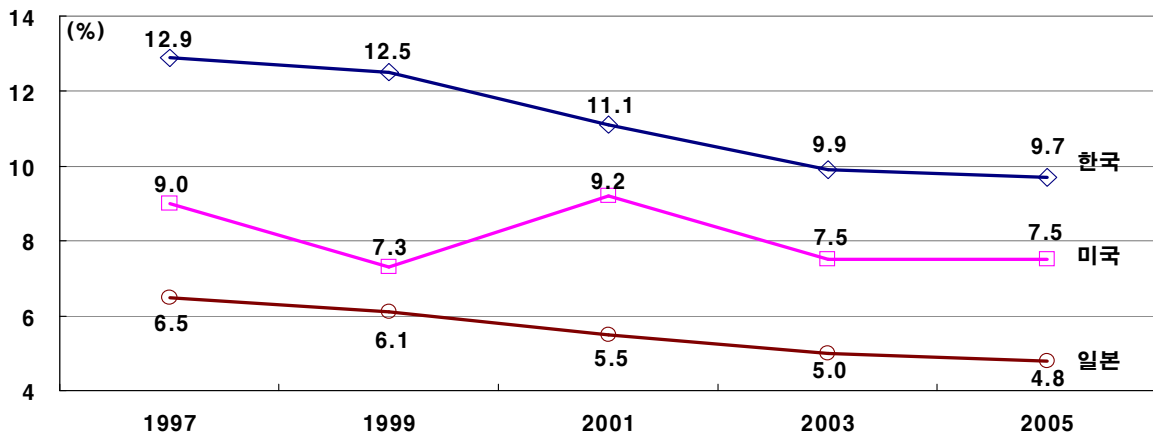
- 이에 따르면 SOC 투자 증액분 5.2조원은 2009년 경제성장률을 0.5%p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추산됨

(5) 경제 효율성 제고 효과

- (경제 효율성 제고로 국가경쟁력 확보) SOC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안정적 에너지 공급, 물류비 절감, 교통혼잡도의 완화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를 가짐

- 우리나라 기업 물류비 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중임4)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1997년 12.9%에서 2005년에 9.7%로 하락하는 추세임
 - 그러나 2005년 기준 미국의 물류비 비중이 7.5%, 일본의 물류비 비중이 4.8%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업들이 높은 물류비로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한미일 매출액 대비 기업물류비 비중(%) 추이 >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5년 기업물류비 실태조사』.

- 4) 세계은행에 의하면 한국의 물류경쟁력 순위는 25위로 싱가포르(1), 일본(6), 대만(21)에 뒤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또한 건설교통부 (現 국토해양부)는 우리나라의 2004년 기준 연간 총가구의 교통관련 사회적 비용은 170조원으로 GDP 대비 22%수준으로 추정
 - 교통관련 사회경제적 비용('04년 기준) : 혼잡비용(23조원), 가계교통비용(40조원), 물류비용(92조원), 사고비용(15조원) 등 (건설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2007. 11. 23.)

4. 정책적 시사점

- '지식 기반 사회'와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개념의 SOC 확충에 주력
 - 지금까지의 SOC 투자가 교통 인프라의 물량적 자본 축적에 주력하였다면, 향후 SOC 투자 정책은 '지식 인프라 구축'과 '환경 비용 축소'에 중심을 두어야 할 것임
 - UNCTAD에 의하면 한국의 탄소 배출량은 2005년 기준 세계 10위, 경제 규모를 고려한 저탄소 배출 순위는 32위에 이를 정도로 다량의 탄소를 배출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류·교통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친환경 도로 건설 확대, 저탄소 배출 물류 시스템 개발 등의 노력이 필요함
 - 또한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등과 같은 지식 인프라 부문의 투자 비중 확대 노력도 요구됨
- 경기 진작을 위해 SOC 투자 정책을 사용할 바에는 경제적 효과 극대화를 위해 조기 발주와 착공이 필요

-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정책들의 신속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SOC 투자 정책의 경우에도 관련 사업의 조기발주와 착공이 이루어져야만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로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2009년 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임
 -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4대강 유역 정비 사업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대운하 관련 사업이 아님을 확실히 밝히고 야당도 정부 SOC 투자 확대 정책의 긴급성을 인식하여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한편 SOC 투자의 경제적 순기능은 경기부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에도 있음
 - 따라서 경제 상황 악화 시에만 SOC 투자 증가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재원 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SOC 관련 사업이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불충분한 재원 조달로 사업이 표류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원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임
 - 즉 경기 침체가 완화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재정수지의 급속한 악화 방지를 위한 민자 유치 활성화

- 최근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BTL, BTO 제도 문제점을 보완하여 민자 유치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임
- 또한 국내 민자 SOC 건설에 있어서 외국 자본의 펀딩이나 외국 건설기업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비효율성 문제 개선을 위해 총체적인 SOC 투자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

- 지방 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중앙·지방간, 지방정부간 원활한 투자 계획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과잉·중복 투자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집행 과정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개선 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할 것임

○ SOC 투자 확대의 건설업 구조조정에 대한 지연 방지

- 국내 건설업은 시공 부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엔지니어링과 같은 고부가가치 부문에 대해 취약한 실정임
 - 이에 따라 해외시장에서 중국 개도국들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구조조정을 통해 글로벌 건설기업으로 발돋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
- 따라서 정부가 대주단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건설업의 구조조정과 배치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직접 발주 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하청업체들에 대한 재무구조상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별첨 1】 산업별 생산유발효과 분석

- 2005년 산업연관표상의 통합중분류(78부문)를 기준으로 할 때 ‘토목 및 특수건설(이하 토목)’의 생산유발계수는 2.1410으로 전산업 평균인 1.9021보다 높은
 - 생산유발계수는 2.1410의 의미는 ‘토목’에 대한 최종수요 1억 원이 증가할 때 경제 전체에 약 2억 1,410만원의 생산이 유발된다는 것임

- 특히 생산유발효과중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53.3%에 달하고 있어, SOC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경우 경제 전반에 높은 생산 파급효과가 예상됨
 - 반면 다른 산업 생산에 대한 파급률의 전산업 평균은 41.1%, 제조업 평균은 42.5%, 서비스업 평균은 37.9%에 불과함
 - 다른 산업 생산에 대한 파급률(%)은 생산유발계수중 해당산업에 대한 계수를 제외한 다른 산업들에 대한 계수를 총생산유발계수로 나누어주어 도출하였음

<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2005년 IO 통합중분류 기준) >

	생산유발계수	타산업생산유발	
		유발계수	유발률
농산물	1.4680	0.4516	30.8%
축산물	2.0939	1.0540	50.3%
임산물	1.3764	0.3212	23.3%
수산물	1.9232	0.8850	46.0%
농림어업서비스	1.9135	0.9132	47.7%
석탄 및 원유	1.6277	0.6274	38.5%
금속광석	1.7771	0.7771	43.7%
비금속광물	1.7611	0.7608	43.2%
육류 및 낙농품	2.6811	1.6461	61.4%
수산가공품	2.4215	1.3351	55.1%
정곡 및 제분	2.2961	1.2935	56.3%
기타 식료품	2.0985	0.9907	47.2%
음료품	1.7945	0.7653	42.6%

사료	1.7152	0.7006	40.8%
담배	1.2755	0.2254	17.7%
섬유사 및 직물	2.0886	0.7979	38.2%
의복 및 섬유제품	2.1077	1.0427	49.5%
가죽제품 및 모피	1.8395	0.7213	39.2%
목재 및 목제품	1.9284	0.6860	35.6%
펄프 및 종이제품	2.0348	0.7225	35.5%
인쇄 및 복제	2.0574	0.8997	43.7%
석탄제품	1.2994	0.2964	22.8%
석유제품	1.1338	0.1049	9.3%
기초화학제품	1.9244	0.5791	30.1%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2.2293	1.2241	54.9%
화학섬유	1.9865	0.9862	49.6%
비료 및 농약	1.7638	0.7262	41.2%
의약품 및 화장품	1.9291	0.8936	46.3%
기타 화학제품	1.9531	0.9170	46.9%
플라스틱제품	2.2589	1.1479	50.8%
고무제품	1.9803	0.9516	48.1%
유리제품	1.6127	0.5877	36.4%
도자기 및 점토제품	1.9456	0.9302	47.8%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2.3490	1.0816	46.0%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2.0643	0.9986	48.4%
선철 및 조강	1.9938	0.4772	23.9%
철강 1차제품	2.4461	1.0955	44.8%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1.6173	0.3531	21.8%
금속제품	2.3738	1.2113	51.0%
일반목적용기계 및 장비	2.3731	1.1786	49.7%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2.3657	1.1837	50.0%
전기기계 및 장치	2.1573	0.9644	44.7%
전자기기부분품	1.6601	0.5217	31.4%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1.8977	0.8022	42.3%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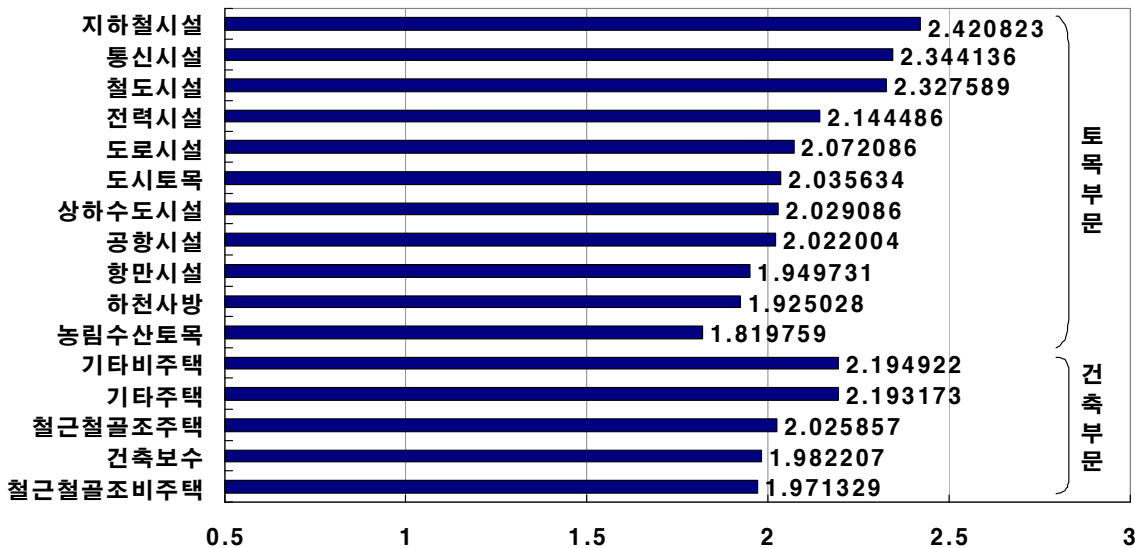
컴퓨터 및 사무기기	1.5230	0.5087	33.4%
가정용 전기기기	2.4387	1.2529	51.4%
정밀기기	2.0473	0.9942	48.6%
자동차	2.7013	1.1265	41.7%
선박	1.9799	0.9248	46.7%
기타 수송장비	1.8087	0.7522	41.6%
가구	2.2799	1.2065	52.9%
기타 제조업제품	2.0606	1.0401	50.5%
전력	1.5756	0.5557	35.3%
도시가스 및 수도	1.2501	0.1703	13.6%
건축건설	2.0397	1.0374	50.9%
토목 및 특수건설	2.1410	1.1410	53.3%
도소매	1.6556	0.6268	37.9%
음식점 및 숙박	2.0610	1.0505	51.0%
육상운송	1.7288	0.7159	41.4%
수상 및 항공운송	1.4104	0.4059	28.8%
운수관련서비스	1.5147	0.4882	32.2%
통신	1.7988	0.6233	34.7%
방송	2.0476	0.8860	43.3%
금융 및 보험	1.5932	0.3350	21.0%
부동산	1.4378	0.4233	29.4%
연구기관	1.5849	0.5584	35.2%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1.7677	0.6893	39.0%
기타 사업서비스	1.5444	0.5076	32.9%
공공행정 및 국방	1.5623	0.5611	35.9%
교육서비스	1.3666	0.3657	26.8%
의료 및 보건	1.7660	0.7512	42.5%
사회복지사업	1.6149	0.6149	38.1%
위생서비스	1.7163	0.6535	38.1%
출판 및 문화서비스	2.1241	0.9791	46.1%
오락서비스	1.6245	0.6083	37.4%
사회단체	2.0816	1.0800	51.9%
기타 서비스	2.0616	1.0590	51.4%
기타	2.8588	1.8309	64.0%

자료: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주: 통합중분류 78부문 기준임.

- 건설업의 하위 업종별 생산유발계수를 2003년을 기준으로 할 때, 토목 부문의 업종들이 주택부문 업종들의 생산유발효과보다 높은 편임을 알 수 있음
 - 특히 지하철, 통신, 철도 업종들의 생산유발계수는 2.3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도로시설, 도시토목, 상하수도시설, 공항시설 등도 2 이상을 나타냄
 - 반면 항만시설, 하천사방, 농림수산토목 등은 생산유발계수가 2 미만을 기록하고 있음
 - 건축 부문의 경우 기타비주택, 기타주택, 철근철골조주택 부문이 2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나, 건축보수, 철근철골조비주택 부문은 2 미만을 나타냄

< 건설업 기본부문의 생산유발계수(2003년 기준)⁵⁾ >



자료: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주: 기본부문 404부문 기준임.⁶⁾

- 5) 건설업 기본 부문의 생산유발계수를 도출하는데 2005년 산업연관표가 아니라 2003년 산업연관표를 사용한 이유는 2008년 12월 현재 2005년 산업연관표가 일부만 발표되었기 때문임 (2009년 초 하위 부문까지 발표 예정).
- 6) 산업연관표의 부문 분류는 건설 부문의 경우 대분류 (건설), 중분류 (건축 및 건축보수, 토목 건설), 소분류 (주택건축, 비주택건축, 건축보수, 교통시설건설, 기타토목건설), 기본부문 (지하철, 주택건축, 비주택건축, 건축보수, 도로시설, 철도시설, 지하철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하천사방, 상하수도시설, 농림수산토목, 도시토목, 전력시설, 통신시설, 기타건설 등) 의 4 단계로 구분.

【별첨 2】 부가가치 유발 효과 분석

- 부가가치유발효과와 수입유발효과는 역(逆)의 관계를 가지는데, 즉 수입유발효과가 작은 산업일수록 부가가치유발효과가 높음
- ‘토목’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161이며, 이는 내수 산업인 서비스업의 0.8695 보다는 다소 낮지만, 주력 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조업(0.6239)보다 크게 높은 수준임
 - 부가가치유발계수란 ‘토목’에 대한 최종수요 1억 원이 증가할 때 경제 전체에 약 8,161만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된다는 의미임
- 따라서 SOC 투자 확대는 재정투자의 경기 진작 효과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되어 효율적으로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됨

< 산업별 부가가치유발계수 (2005년 IO 통합중분류 기준) >

부 문	부가가치 유발계수	수입유 발계수	부 문	부가가치유 발계수	수입유발 계수
농산물	0.8820	0.1180	일반목적용기계 및 장비	0.7115	0.2885
축산물	0.7406	0.2594	특수목적용기계 및 장비	0.7155	0.2845
임산물	0.9502	0.0498	전기기계 및 장치	0.6561	0.3439
수산물	0.7608	0.2392	전자기기부분품	0.5518	0.4482
농림어업서비스	0.8540	0.1460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0.5021	0.4979
석탄 및 원유	0.9008	0.0992	컴퓨터 및 사무기기	0.4073	0.5927
금속광석	0.8714	0.1286	가정용 전기기기	0.6625	0.3375
비금속광물	0.8643	0.1357	정밀기기	0.6608	0.3392
육류 및 낙농품	0.7554	0.2446	자동차	0.6909	0.3091
수산가공품	0.7209	0.2791	선박	0.5991	0.4009
정곡 및 제분	0.8291	0.1709	기타 수송장비	0.5363	0.4637
기타 식료품	0.7304	0.2696	가구	0.7136	0.2864
음료품	0.8429	0.1571	기타 제조업제품	0.7015	0.2985

SOC 투자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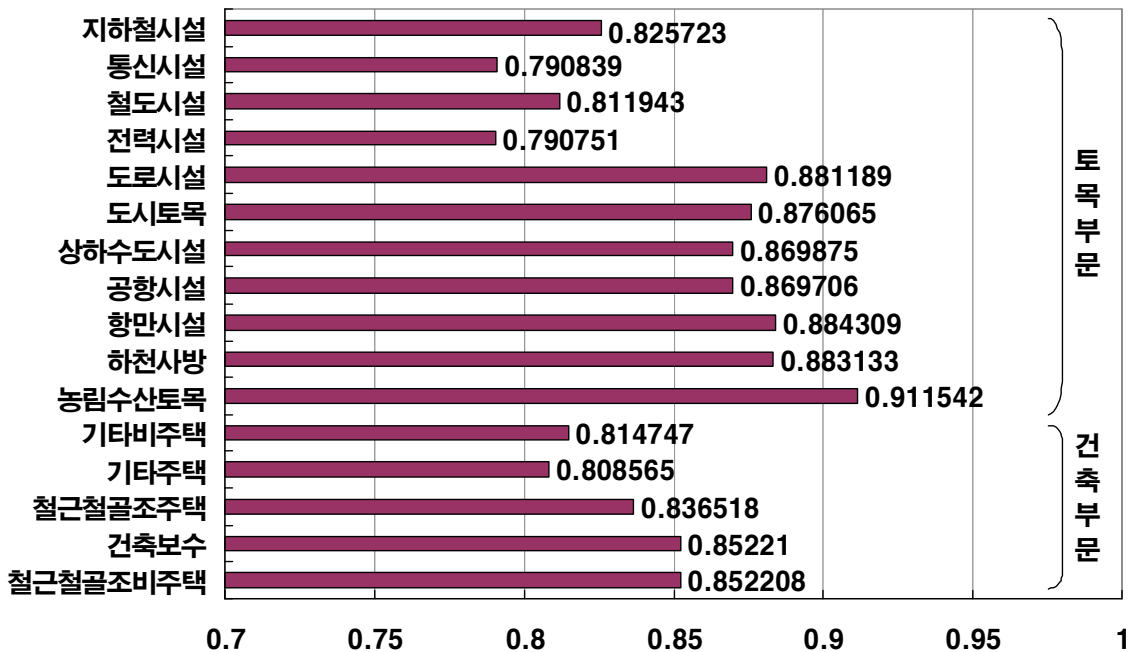
사료	0.4696	0.5304	전력	0.6926	0.3074
담배	0.9135	0.0865	도시가스 및 수도	0.3940	0.6060
섬유사 및 직물	0.6111	0.3889	건축건설	0.8269	0.1731
의복 및 섬유제품	0.7364	0.2636	토목 및 특수건설	0.8161	0.1839
가죽제품 및 모피	0.5958	0.4042	도소매	0.9006	0.0994
목재 및 목제품	0.5918	0.4082	음식점 및 숙박	0.8389	0.1611
펄프 및 종이제품	0.6582	0.3418	육상운송	0.8042	0.1958
인쇄 및 복제	0.8189	0.1811	수상 및 항공운송	0.3809	0.6191
석탄제품	0.2192	0.7808	운수관련서비스	0.9242	0.0758
석유제품	0.3600	0.6400	통신	0.8750	0.1250
기초화학제품	0.4128	0.5872	방송	0.8665	0.1335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0.4942	0.5058	금융 및 보험	0.9429	0.0571
화학섬유	0.4720	0.5280	부동산	0.9624	0.0376
비료 및 농약	0.4613	0.5387	연구기관	0.9040	0.0960
의약품 및 화장품	0.7340	0.2660	사업관련 전문서비스	0.8757	0.1243
기타 화학제품	0.5518	0.4482	기타 사업서비스	0.9338	0.0662
플라스틱제품	0.6624	0.3376	공공행정 및 국방	0.8922	0.1078
고무제품	0.6520	0.3480	교육서비스	0.9474	0.0526
유리제품	0.6727	0.3273	의료 및 보건	0.8672	0.1328
도자기 및 점토제품	0.7322	0.2678	사회복지사업	0.9271	0.0729
시멘트 및 콘크리트제품	0.7868	0.2132	위생서비스	0.8921	0.1079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0.7133	0.2867	출판 및 문화서비스	0.8510	0.1490
선철 및 조강	0.4621	0.5379	오락서비스	0.9285	0.0715
철강 1차제품	0.5907	0.4093	사회단체	0.8916	0.1084
비철금속괴 및 1차제품	0.3702	0.6298	기타 서비스	0.8533	0.1467
금속제품	0.7220	0.2780	기타	0.7537	0.2463

자료: 한국은행 2005년 산업연관표.

주: 통합중분류 78부문 기준임.

- 기본부문별 부가가치유발계수를 살펴보면, 대체로 토목 부문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건축 부문의 유발계수보다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토목 부문중 도로시설, 도시토목, 상하수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하천사방, 농림수산토목 등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0.86 이상을 기록함
 - 토목 부문중 통신시설, 철도시설, 전력시설 등은 수입유발효과가 높아 0.8 미만을 기록함
 - 건축부문의 경우 0.8을 상회하나 토목 부문중 부가가치유발계수가 높은 그룹의 유발계수 하한 값인 0.86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건설업 기본부문의 부가가치유발계수(2003년 기준) >



자료: 한국은행 2003년 산업연관표.
 주: 기본부문 404부문 기준임.7)

7) 주 3)의 산업연관표 부문 분류 설명을 참조.

【별첨 3】 최근 건설투자의 동향과 전망

- (건설투자의 경제적 비중) 올해 1/4~3/4분기 국민계정상 건설투자 비중은 17.3%로 설비투자 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함
 - 건설투자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2005년 18.7%에서 올해 1/4~3/4 분기에 61.2%로 크게 하락함
 - 올해 1/4~3/4분기중 명목 건물건설투자는 74.3조원으로 전체 건설투자 121.8조원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명목 토목건설투자는 47.5조원으로 약 39%를 차지하고 있음

< 국민계정상의 명목 건설투자 지표 >

(단위 : 조원)

	2005	2006	2007	2008			
				1/4~3/4	1/4	2/4	3/4
건설투자	151.4	155.6	162.9	121.8	31.6	45.2	45.0
건물건설	89.8	91.7	96.7	74.3	20.9	26.2	27.2
주거용건물	47.3	46.8	47.6	35.5	10.1	12.5	12.9
비주거용건물	42.5	44.8	49.1	38.8	10.8	13.7	12.9
토목건설	61.6	63.9	66.2	47.5	10.6	19.0	17.8
건설투자/총고정투자(%)	63.8	63.2	62.8	61.2	56.9	62.7	63.0
건설투자/GDP(%)	18.7	18.4	18.1	17.3	14.4	18.8	18.6

자료 : 한국은행.

- (건설투자 동향) 건설투자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수년간 2005년 이후 지금까지 건설투자가 침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임
 - 실질 건설투자는 2005년에 전년대비 0.2% 감소한 데 이어 2006년에도 0.1% 감소세를 기록함
 - 이후 2007년에는 1.2%의 소폭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2008년에 들어

다시 1.2%의 감소세로 전환됨

- SOC 투자와 관련된 토목 건설의 경우 전반적인 건설투자가 부진한 가운데에도 2005~2007년의 기간 동안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8년에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국민계정상의 실질 건설투자 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5	2006	2007	2008			
				1/4~3/4	1/4	2/4	3/4
건설투자	△0.2	△0.1	1.2	△1.2	△1.1	△1.2	△1.3
건물건설	△1.4	△0.7	1.8	△1.4	△0.3	△1.8	△1.9
주거용건물	2.2	△3.5	△1.8	△4.7	△5.0	△5.3	△3.8
비주거용건물	△5.0	2.6	5.6	1.8	4.5	1.7	△0.2
토목건설	1.5	0.7	0.3	△0.9	△2.5	△0.5	△0.2

자료 : 한국은행.

- (건설투자 전망) 향후 정부의 SOC 투자 확대 정책으로 공공·토목 부문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민간·건축 부문의 위축이 심화될 것으로 보임

- 올해 1~10월의 건설수주 증가율은 12.5%의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건축 부문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수주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 민간 부문 건설수주는 2007년에 13.1% 증가에서 올해 1~10월에 전년동기대비 18.9%의 감소세로 반전됨
 - 특히 민간 부문 건설수주는 3/4분기에 32.5%의 감소세를 기록한 데 이어, 10월에도 전년동월대비 32.6%의 감소세를 기록함
- 한편 공공 부문의 경우 2007년의 증가세가 2008년에도 이어지고 있으나 그 증

가폭은 약화되는 모습을 나타냄

- 공공부문 건설수주 증가율은 2007년에 전년대비 34.2%에서 2008년 1~10월에 12.7%로 크게 둔화됨
- 공종별로는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받는 건축부문 수주가 침체가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건축 부문 수주는 2007년에 전년대비 14.6% 증가에서 올해 1~10월에 전년동기대비 18.1% 감소세로 반전됨
 - 특히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2007년에만 해도 13.3%의 증가세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올해 1~9월에 전년동기대비 5.7% 감소를 기록함
- 반면 토목 부문 수주의 경우 올해 상반기까지는 감소세를 기록하기도 하였으나, 하반기 들어 정부 발주 공사가 확대되면서 높은 증가세를 기록중임
 - 토목 부문 건설수주는 올해 1/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25.5% 감소한 데 이어 2/4분기에 3.9%의 감소세를 기록함
 - 그러나 3/4분기에 들어 16.7%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10월에도 전년동월대비 75.7%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면적 증감률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07	2008							
		1~10월	1/4	2/4	3/4	8월		10월	
						8월	9월		
건설수주	19.3	△12.5	△3.9	△6.1	△22.8	△7.6	△40.4	△23.9	
발주	공 공	34.2	12.7	20.0	18.6	3.3	11.2	7.8	△25.6
	민 간	13.1	△18.9	△15.0	△5.9	△32.5	△10.5	△59.9	△32.6
공종	건 축	14.6	△18.1	5.7	△6.8	△37.6	△39.5	△50.4	△47.8
	토 목	34.6	3.2	△25.5	△3.9	16.7	84.0	△5.0	75.7
건축허가면적	13.3	△5.7 (1~9월)	△8.3	3.9	△13.5	△27.3	△2.1	-	

자료: 통계청,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 주: 1) 건설수주는 경상금액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 2) 건축허가면적은 천㎡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별첨 4】 SOC 투자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

□ 건설투자

- SOC 투자 1조원 증가 = 명목 건설투자 1조원 증가
- 명목 건설투자 1조원 = 실질 건설투자 6116억원
 - 2009년 건설투자 디플레이터 = 163.5 (3년간 디플레이터 상승률 평균치 이용)
- 실질 건설투자 6116억원은 2008년 예상 실질 건설투자 117.1조원의 0.52%
 - 2008년 예상 실질 건설투자 117.1조원은 현경연 경제전망 자료(08.12.08)상의 2008년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치 $\Delta 1.4\%$ 를 이용하여 추정

□ 고용

- 2003년 산업연관표 기준 '토목' 부문의 취업유발계수 16.6명/10억원
- 따라서 1조원의 SOC 투자는 1만 7,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
 - $1.66\text{명/억원} \times 10,000\text{억원} = 16,600\text{명}$

□ 민간소비

- SOC 투자 1조원에 따르는 경제 전체의 가계소득 증가분 = 5,126.4억원
 - 일자리 16,600개 \times 3088.2만원 (2009년 건설업 평균 임금) = 5,126.4억원
 - 2009년 건설업 평균임금은 3년간 건설업 근로자 임금상승률을 고려하여 추정
- 3/4분기 전국가구의 평균소비성향 77.5%를 고려 \rightarrow 약 4,000억원의 소비 증가
- 3년간 민간소비 디플레이터로 실질가치화 하면 민간소비 증가율 0.08%p 제고

□ 경제성장률

-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0.1%p = 건설투자 증가율 제고 효과 (0.52%p) \times GDP대비 건설투자 비중 (15%) + 민간소비 증가율 제고 효과 (0.08%p) \times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 (60%) - 수입 유발로 인한 성장률 잠식 효과 (0.01%p)
 - 수입유발액은 토목 부문 수입유발계수 0.1839를 이용하여 추산 **HRI**

주 원 연구위원 (02-3669-4030, juwon@hri.co.kr)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주요 경제지표 추이와 전망							
		2007(P)	2008(E)	2009(E)	상반기	하반기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	5.0	4.1	3.1	2.2	3.8	
	최종소비지출 (%)	4.7	2.3	1.1	0.9	1.2	
	민간소비 (%)	4.5	2.0	0.8	0.7	0.9	
	총고정자본형성 (%)	4.0	0.3	2.1	1.3	2.9	
	건설투자 (%)	1.2	-1.4	2.2	1.5	2.8	
	설비투자 (%)	7.6	1.5	2.3	1.2	3.3	
대외 거래	경상수지 (억 \$)	60	-59.3	25	15	1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47	-85	54	20	34
		수출 (억 \$)	3,715	4,383	4,558	2,194	2,364
		증가율 (%)	(14.1)	(18.0)	(4.0)	(2.5)	(5.4)
		수입 (억 \$)	3,568	4,468	4,504	2,174	2,330
		증가율 (%)	(15.3)	(25.2)	(0.8)	(-1.5)	(3.1)
기 타	소비자물가 (평균, %)	2.5	4.7	3.3			
	실업률 (%)	3.2	3.3	3.5			
	국제유가(Dubai, \$)	68	95	60			
금 용	원/\$ 환율 (평균, 원)	929.0	1,100.0	1,200.0			
	국고채금리 (3년만기, 평균 %)	5.23	5.3	4.8			